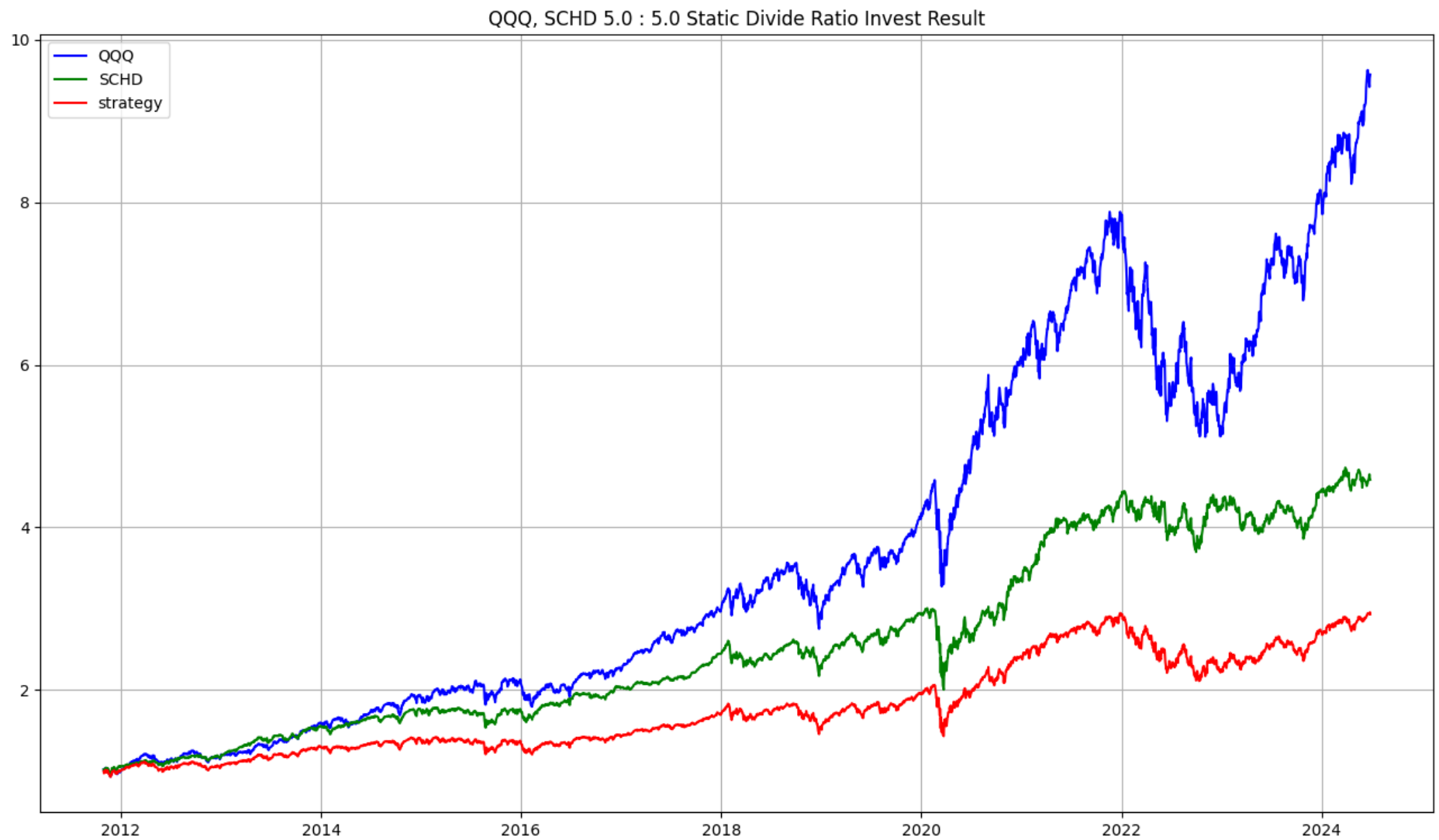


백테스팅 결과

▲ 알은 금융경제 지식으로 인한 오역이 있을 수 있음.

결과 해석

그래프상 QQQ의 누적수익률이 가장 높다. 하지만 그만큼 변동성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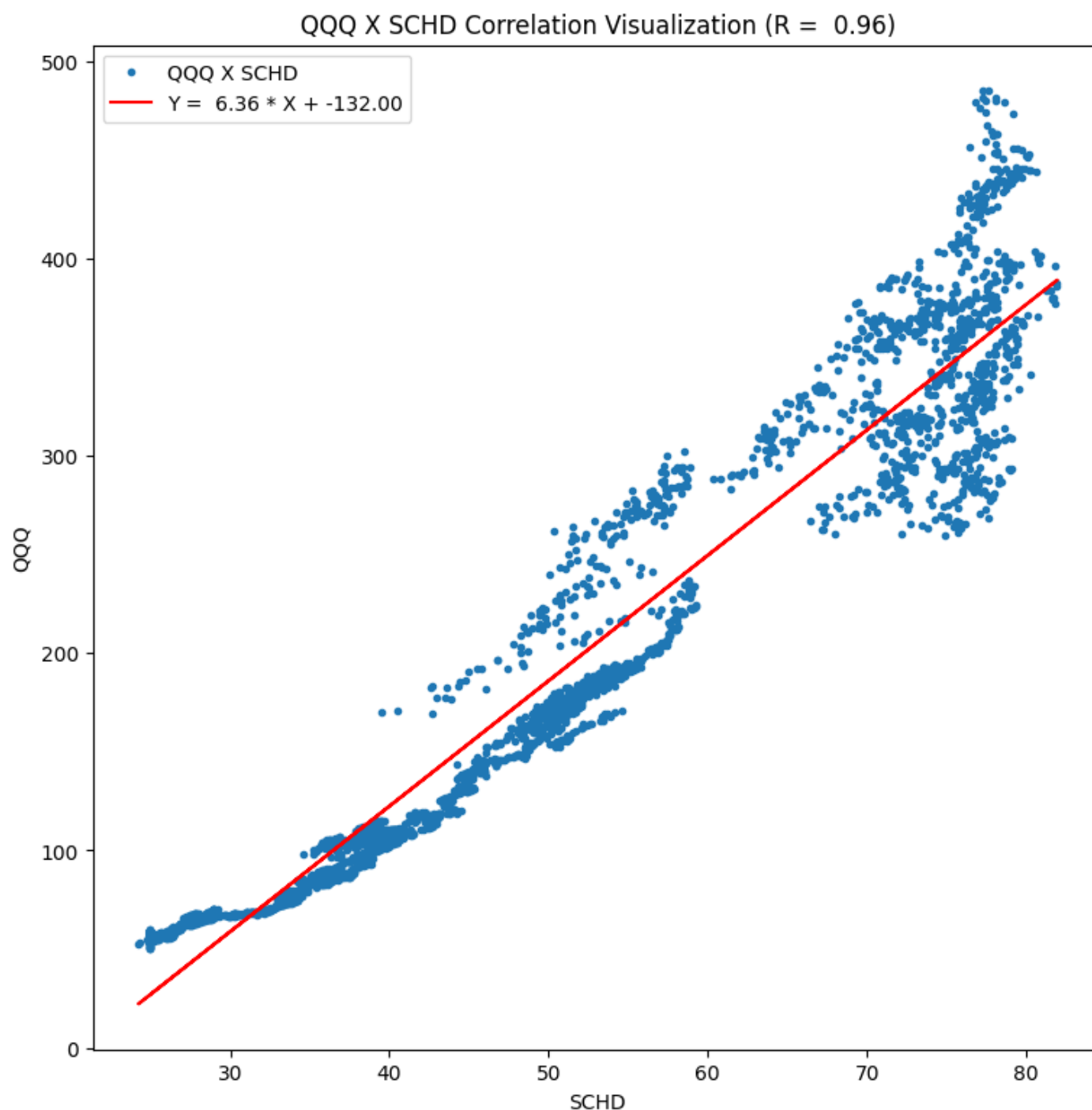
QQQ 차트

- '20 ~ '21 상승폭 약 400%, '22 하락폭 약 150%로 매우 높은 변동성을 보임
 - '20 ~ '21 상승 이유 : 20년 코로나 사태 발발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연준의 과도한 금리인하 정책
 - '22 하락 이유 : 과도한 금리인하 정책을 오랜 기간 지속하여 발생된 버블이 21년 12월부터 터지기 시작하면서 긴 하락장 발생. 전고점 회복까지 약 2년 소요('23년 12월 전고점 부근까지 상승)

SCHD 차트

- '20 하락폭 약 100%로 코로나의 타격을 받긴 했지만 이후 꾸준한 상승세로 보임, QQQ에 비해 변동성이 낮다고 판단됨

⇒ 따라서 리스크 고려 시 QQQ 단독매수는 좋은 선택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분산투자자 리스크를 절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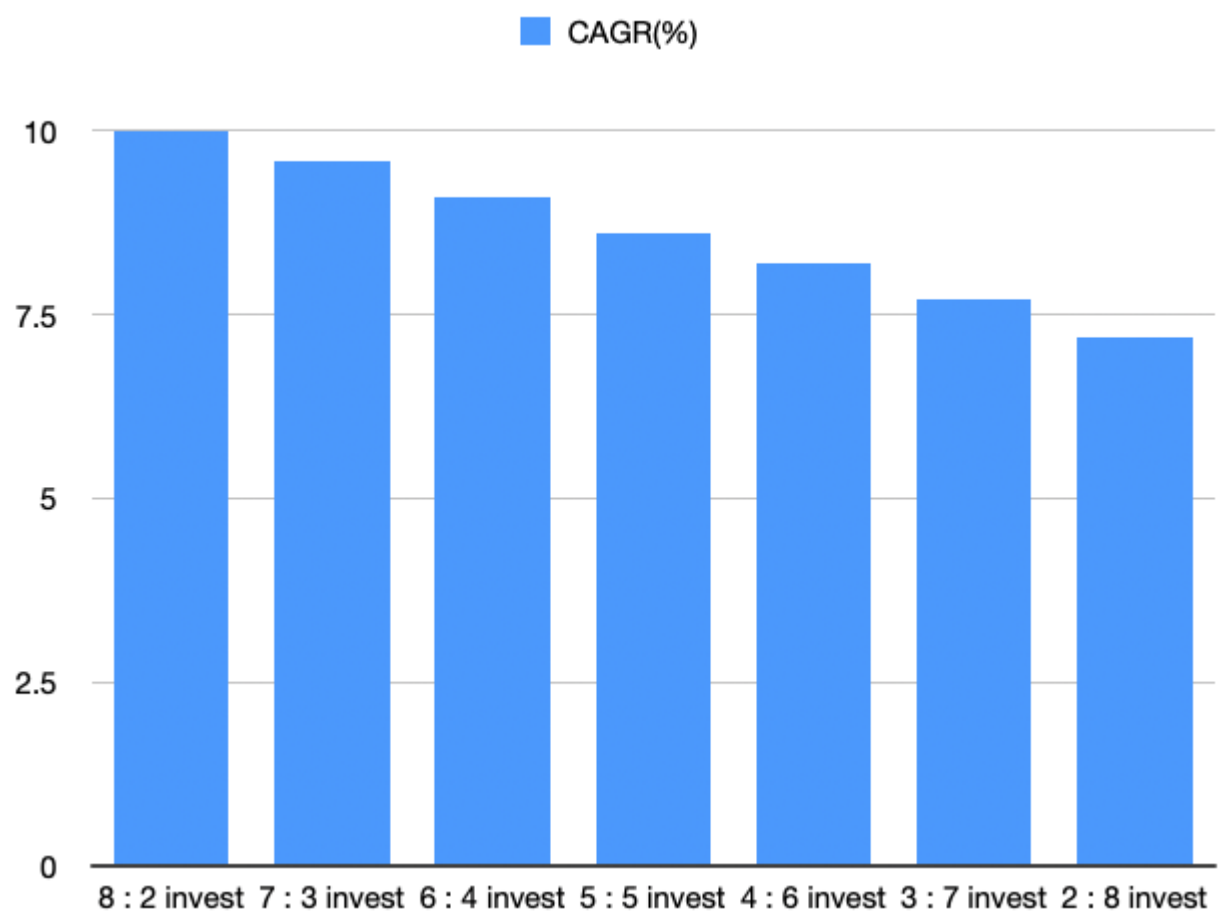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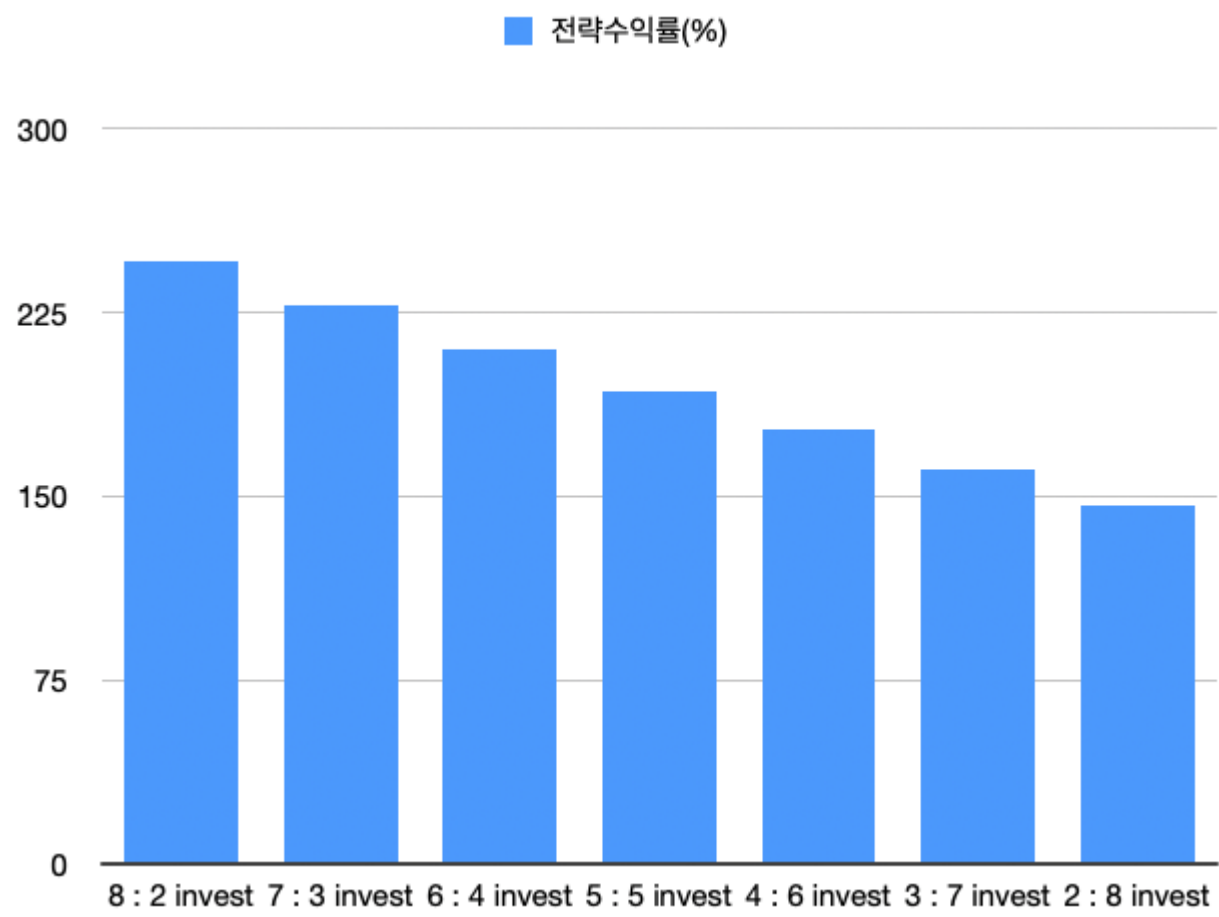
하지만 SCHD는 QQQ와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 자산으로 보이며, 포트폴리오에 둘을 함께 담는다고 리스크 절감을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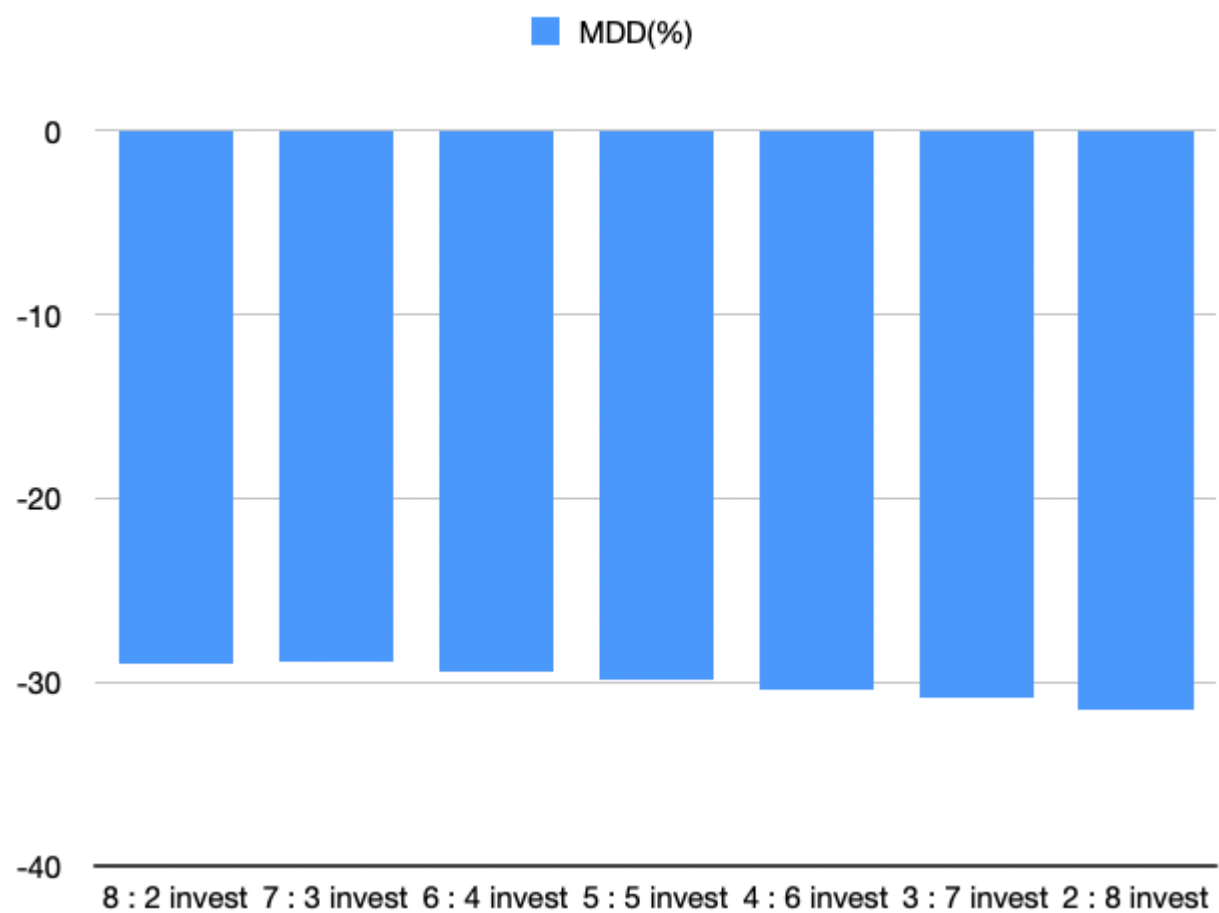
결과 정리(도표)

투자비율 조정 시 전략수익률, CAGR, MDD 결과

QQQ SCHD 분할매수 백테스팅 (2011/11 ~ 2024/06)

QQQ : SCHD	CAGR(%)	MDD(%)	전략수익률(%)	QQQ 개별수익률(%)	SCHD 개별수익률(%)
8 : 2 invest	10	-29	246	835	349
7 : 3 invest	9.6	-28.9	228		
6 : 4 invest	9.1	-29.4	210		
5 : 5 invest	8.6	-29.9	193		
4 : 6 invest	8.2	-30.4	177		
3 : 7 invest	7.7	-30.9	161		
2 : 8 invest	7.2	-31.5	146		





총평

리스크 분산 목적으로 QQQ와 SCHD를 분산투자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보임. SCHD는 백테스팅 결과로 보면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해 왔고, 변동성도 적어보이므로 보수적 투자성향을 가진 사람들에게 적합한 자산인 것 같고,

QQQ는 수익률이 높았으나 그만큼 변동성이 큰 편이기 때문에 상관성이 낮은(반대되는) 다른 자산을 물색하여 분산투자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여담 : 미국 지수추종 ETF 투자의 중요성을 깨닫고 실천에 옮기는 중이다. 리밸런싱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달았다. 장기투자를 결심하게 되면, 투자금 규모가 늘고 배당소득이 증대되는 것을 대비하여, ISA계좌로 투자하는 등의 절세전략을 구축해야겠다고 느꼈다. 참조한 블로그의 소스코드로 많은 공부가 되었다.